

65세 이상 연금 평균은 왜 60~64세보다 31만 4천원 낮나

같은 사람의 전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연령집단이고, 기초연금 포함 여부와 연금 구성이 다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연금통계 원문과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을 대조해 수급률과 평균액의 분모, 연령집단과 연금종류의 구성을 분리했습니다.

발행	2026.08.25	연번	2026_59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60~64세와 65세 이상 수치를 생애의 전후 변화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같은 사람을 추적한 통계가 아니고, 65세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규모로 포함되며 국민연금·직역연금·개인연금의 조합도 다르다. 공개 요약만으로 31만4천원 차이를 제도별로 분해할 수 없으므로 '수급자가 늘어서 평균이 내려갔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2024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률은 91.2%, 월평균 수급액은 73만7천원이었습니다. 60~64세는 44.4%, 105만1천원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수급자가 늘어 평균이 내려간 결과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집단의 구성 차이입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8월 25일 행정자료를 연계한 「2024년 연금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912만 2천명	수급률 91.2%
65세 이상 월평균 수급액	73만 7천원	연금 1개 이상 수급자
60~64세 연금 수급자	182만 4천명	수급률 44.4%
60~64세 월평균 수급액	105만 1천원	연금 1개 이상 수급자
65세 이상 연금 수급가구	683만 1천가구	가구 수급률 95.9%
가구 월평균 수급액	95만 9천원	65세 이상 수급자가 있는 가구

연금통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여러 제도를 행정자료로 연결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연금을 받으면 제도별 수급자 수에는 중복될 수 있지만 개인 수급자 통계에서는 연금 1개 이상을 받는 사람으로 셉니다.

65세 이상 수급률 91.2%는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연금 1개 이상을 받은 사람의 비율입니다. 월평균 73만 7천원은 그 수급자들이 받은 연금액의 평균이지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평균소득이 아닙니다.

60~64세 수급률 44.4%와 평균 105만 1천원은 다른 연령집단의 값입니다. 65세 이상과의 차이를 같은 사람이 65세가 된 뒤 받는 금액의 변화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65세는 제도 구성의 경계입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는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정합니다. 60~64세 집단에는 이 제도의 수급자가 원칙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지급개시연령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역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도 수급 시작 시점과 가입 이력이 다릅니다. 60~64세에 이미 연금을 받는 사람은 조기·직역·퇴직·개인연금 등의 이력이 있는 선택된 집단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등 비교적 금액이 작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 수급자 집단에 추가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평균 차이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연령대별 제도 조합, 중복수급, 지급기간과 소득·가입이력의 분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통계가 보여 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같은 사람의 연금액이 감소한다'가 아니라, 두 연령집단의 수급률과 평균액이 다르다는 횡단면입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65세 이상 수급률은 60~64세보다 46.8%포인트 높고 월평균 수급액은 31만 4천원 낮습니다. 두 차이는 동시에 관찰되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에게 중요한 값은 전체 평균보다 내가 받을 연금의 종류와 시작일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액, 퇴직연금·개인연금의 지급기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평균 95만 9천원은 개인 평균 73만 7천원과 분모가 다릅니다. 한 가구에 수급자가 둘 이상이면 가구 수급액은 합산되므로 두 평균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수급률 차이	+46.8%p	91.2% - 44.4%
월평균액 차이	-31만 4천원	73만 7천원 - 105만 1천원
개인·가구 평균 차이	+22만 2천원	95만 9천원 - 73만 7천원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제도별 분해

31만4천원 차이를 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퇴직·개인연금별로 나눈 기여도는 요약자료에 없습니다.

02 · 동일인 추적

60~64세 사람이 65세가 된 뒤 수급액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 주는 종단통계가 아닙니다.

03 · 중복수급

연금 종류별 수급자 수는 중복될 수 있어 제도별 인원을 더해 개인 수급자 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04 · 생활비 충족

월평균 수급액만으로 주거비·의료비·가구원 수를 반영한 노후소득 충족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05 · 지금 할 일**지금 할 일****국민**

-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 노령연금액과 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합니다.
- 퇴직연금·개인연금은 적립금이 아니라 월 지급액, 지급기간과 수수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 기초연금은 65세 도달 전에 소득인정액 기준과 신청 시기를 주민센터 또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금융회사

- 연금 예상액을 보여 줄 때 제도별 시작일과 종료일, 세전·세후 금액을 같은 표에 표시합니다.
- 전체 평균을 개인의 예상 수령액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당국

- 연령대별 평균액을 연금종류와 중복수급 조합으로 분해해 공개합니다.
- 동일인이 65세 전후에 어떤 연금이 추가되고 총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익명 종단통계의 제공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갈림길**연령집단 평균이 제도별 구성으로 분해되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현재 요약표는 수급률과 평균액을 보여 주지만 60~64세와 65세 이상의 차이를 제도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A

총평균만 공개
수급자 확대와 수급액 차이를 원인처럼 오해하는 해석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B

구성효과 공개
제도별 인원·평균·중복수급을 나누면 기초연금 편입과 가입이력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다음 연금통계의 연령별 제도 구성표와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통계표 확대 여부를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4개의 연결 지식**

[넥서스 브리프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

[넥서스 브리프 퇴직연금 수익률 격차는 왜 벌어지나 ↗](#)

[금융제도 퇴직연금 수급권의 보호 ↗](#)

피해구제 퇴직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7건

01	1차 ·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912만2천명, 수급률 91.2%, 월평균 73만7천원 국가데이터처 「2024년 연금통계 결과」 2026년 8월 25일 원문 열기 ↗
02	1차 · 65세 이상 연금 수급가구 683만1천가구, 수급률 95.9%, 월평균 95만9천원 위 동일. 공식 보도자료 요약 원문 열기 ↗
03	1차 · 60~64세 수급자 182만4천명, 수급률 44.4%, 월평균 105만1천원 국가데이터처 2024년 연금통계 공식 PDF 연령별 표 원문 열기 ↗
04	1차 · 연금통계는 기초·국민·직역·퇴직·개인·주택·농지연금 행정자료를 연계 국가데이터처 2024년 연금통계 공식 PDF 작성개요 원문 열기 ↗
05	1차 ·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기초연금법 제3조 원문 열기 ↗
06	1차 ·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지급개시연령 요건에 따라 지급 국민연금법 제61조 원문 열기 ↗
07	파생 · 수급률 차이 46.8%포인트, 월평균액 차이 31만4천원 91.2%-44.4%, 105만1천원-73만7천원의 단순 차이. 인과효과가 아님

추적 예정	다음 연금통계에서 연령별 수급액의 제도별 구성, 중복수급과 65세 전후 동일인 변화가 추가되는지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첨부분 연번 NB-2026-073을 실제 공개 순서에 맞춰 NB-2026-059로 바로잡고 발행일을 2026년 8월 25일로 정정했습니다. '수급자가 늘어 평균이 내려갔다'는 인과 단정을 삭제하고 서로 다른 연령 집단의 구성 차이로 다시 썼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이며 국가데이터처·연금기관의 공식 입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제 연금액과 수급 자격은 가입이력·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며 개별 재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